

# 清初 揚州의 재건과 문인공동체의 상관성 연구\*

— 王士禛을 중심으로

홍혜진\*\*

##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지역특성의 부각과 지역연대감 조성
  - 2) 紅橋 修禊를 통한 문인 풍류문화 활성화
  - 3) 다양한 텍스트 활용으로 문인공동체 확대와 지식인양성
3. 결론

## 1. 서론

### 1) 연구 목적

清初에 揚州는 만주족의 학살을 겪은 상흔의 도시였다.<sup>1)</sup> 그로부터 100년 후 李斗의 『揚州畫舫錄』에서는 역동적인 경제와 예술문화의 중심지로 묘사되었다. 양주가 蘇州, 南京과 함께 나란히 晚明 시기의 화려함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강남의 대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順治 17년(1660)부터 康熙 4년(1665)까

\*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942).

\*\*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초빙교수

1) 1645년에 豫親王 다이곤에 맞서 史可法이 혈전을 벌였으나 결국 양주가 함락되고 사가법도 목숨을 보전하지 못했다. 게다가 변발 칙령에 반발하는 반란이 일어나자 청군은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王秀楚의 『揚州十日記』에 당시의 정황이 자세히 기록되었다고 한다. 윌리엄 T. 로 저, 기세찬 역, 『중국 최후의 제국』, 서울: 너머북스, 2014, 49쪽.

지 揚州推官을 지냈던 王士禛(1634-1711)<sup>2)</sup>의 활약이 컸다.

양주는 왕사진이 진사 급제 후 과견된 첫 부임지였다. 유능한 관료로서 남긴 성과들을 살펴보면 1659년에 鄭成功이 청에 대항하여 瓜洲, 鎮江 및 남경까지 진격하다 대패하자 1661년에 황실에서는 지역민들이 정성공의 전투를 도왔다고 여기고 조사하여 형을 집행하며 무고한 이들과 체포하였다. 이것이 바로 ‘通海案’이었는데 왕사진은 이를 재검토하고 억울한 이들을 석방시켜 주었다. 또한 염상들에게는 1645-1660년에 생긴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경비를 조달해주어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 元日에 관료들이 가기와 악사를 고용하여 연회를 즐기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였다.<sup>3)</sup>

그런데 이러한 정치활동 이면에 왕성한 문화 활동이 수반되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왕사진은 공무 외에 주변 문인들과 자주 시간을 가졌다.<sup>4)</sup> 그 과정에서 詩는 전체 작품의 약 1/5이 지어졌고 『過江集』, 『白門集』, 『入吳集』, 『辛丑詩』, 『壬寅詩』, 『癸卯詩』, 『阮亭詩選』 등의 시집이 연이어 간행되었으며 시선집 『神韻集』(유실), 창화집으로 『鑾江唱和集』, 『紅橋唱和詞』, 『禪智唱和詩』, 『水繪庵園乙巳上巳修禊詩』가 만들어졌다. 시가 사상이 반영된 대표작 『論詩絕句』가 지어진 것도 바로 이때였다. 그리고 詞 또한 1661-1662년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어<sup>5)</sup> 사집 『衍波詞』, 사론집 『花草蒙拾』, 詞合集 『倚聲初集』과 『三家詩餘』가 만들어졌다. 그야말로 시사 창작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통해 신운설의 기반을 다지고 陽羨派, 浙西派의 詞派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시사 창작은 揚州, 南京, 蘇州, 常州 등지를 오가면서 지어졌고 지역축

2) 王士禛은 자는 子眞, 貽上이고 호는 阮亭, 漁洋山人이다. 山東 濟南 新城 사람이다. 세상을 떠난 후 雍正제가 즉위하자 ‘禛’을 피휘하여 ‘士正’으로 고쳤다가 건륭제 때에 ‘士禛’으로 고치라는 조서가 내려졌다. 이런 이유로 王士禛과 王士禛이 혼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원명인 王士禛을 쓰도록 하겠다. 단 다른 저서나 논문의 표기는 저자가 사용한 것을 따르겠다.

3) 梅爾清 저, 朱修春 역, 『清初揚州文化』,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5, 46-49쪽.

4) “공무가 끝나면 손님들을 초대하여 흥교와 평산당에 배를 띄우고 술을 마시며 시를 지었다.(公事筆, 則召賓客泛舟紅橋, 平山堂, 酒酣賦詩)” 王士禛 撰, 孫言誠 點校, 『王士禛年譜』, 北京: 中華書局, 1992, 27-28쪽.

5) 왕사진은 양주를 떠난 이후로는 거의 사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 이석형, 「王士禛 詞 研究」, 『외국학연구』 30집, 2014, 339쪽.

제와도 맞물려 있었다. 상사일, 청명절, 단오절, 중앙절의 주요 절기에는 사회에 참여하거나 직접 주최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修禊 행사를 하였던 '紅橋'는 왕사진의 후광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었다. 왕사진은 고급 문인문화의 소유자로서 이러한 문화행사를 주도하며 정치인, 남방의 유민문인, 지역인사, 각 지역별 문단의 영수 등 다수의 사람들과 교유하였는데 특히 布衣 계급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順治 18년에 지은 「歲暮懷人絕句六十首」에서도 포의의 비중이 높았고<sup>6)</sup> 康熙 12년에 지은 『漁洋山人感舊集』에서는 포의 333명에 약 2,570수의 작품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문인공동체의 주된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왕사진에 대한 연구가 시론에만 국한되었던 편협한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청초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에서 의도되었다. 특히 왕사진이 폐허가 된 도시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문화활동과 문필활동을 벌이며 문인공동체를 형성하였던 점을 주시하였다. 참혹했던 양주를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왕사진을 중심으로 한 문인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화는 도시화 과정과 매우 밀접하고 도시는 인간 문명의 “공간적 응집체”로 개괄된다.<sup>7)</sup> 또한 그 안에서 작동하는 권력은 미셸 푸코가 “사물을 가로지르며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즐거움을 가져오고 지식을 형성하고 담론을 구성하는 점”<sup>8)</sup>이라고 말하였는데 왕사진을 중심으로 한 문인공동체의 형성과 이들의 활동이 양주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왕사진이 문단의 영수로 그리고 양주추관에서 더 나아가 권력의 주요인사로 성장하는 기반이 양주에서 다져졌고 양주가 강남의 대도시로 재기하는 데에도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왕사진은 이민족 황실의 한족 관리이면서 강남 望族 출신의 문인이었다. 같은 듯 다른 신분으로 만주족의 대학살이 자행된 곳에 부임한 왕사진은 물리적인 도시 재건보다도 遺民의 상처를 위로할 정서적, 문화적 친화력이 더 필요했을 듯하

6) “시에서 언급한 이들은 대부분 포의이다.(詩中所及, 大半布衣也)” 王士禛 著, 袁世碩 主編, 『王士禛全集5』, 『居易錄』 권4, 濟南: 齊魯書社出版, 2007, 3752쪽.

7) 이무영 저, 『공간의 문화정치학』, 서울: 논형, 2005, 124-125쪽.

8) 양운덕 저, 『미셸푸코』, 과주: 살림, 2003, 18-20쪽.

다.<sup>9)</sup> 왕사진이 양주추관시기에 집중적으로 보여준 詩詞 창작활동 및 주변인들과의 교류활동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단적 唱和를 유도하고 강남의 풍류문화를 부흥시키며 예술적, 문화적 활성화를 통해 연대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왕사진을 중심으로 문인공동체가 결집되고 양주가 예술문화의 도시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확인하며 청대 초기에 나타난 상층신사의 문화 활동 특징, 지역성의 반영 방법, 문인공동체의 형성 과정, 구성원의 특징, 주요 담론, 작품 경향, 텍스트의 활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운설의 형성 배경과 왕사진의 정치적, 문화적 지배력을 강화시킨 요인들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연구 방법

지금까지 이루어진 왕사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크게 '神韻'의 어원 논의, 생평 연구, 시학사상 연구, 신운설 연구, 신운과 성령의 관계 연구, 司空圖 및 嚴羽 시론과의 연관성 연구, 시가 작품 연구, 필기류 작품 연구, 『聊齋志異』 평점 연구, 신운설의 조선 수용 연구, 초기 양주시기의 문학 활동 연구 등으로 나뉜다. 2007년에 袁世碩 主編의 『王士禛全集』이 출판된 이후로는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국내는 김진영의 「왕사진시론연구」, 금지아의 『신운의 전통과 변용-왕사진·申緯의 시학 관계성과 비교론』, 송영주의 『왕사진시선』 등으로 대체로 시론분야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인 연구동향은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사회문화적 접근 방법이 새롭게 시도되어 그 연구 편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족이면서 만주족 황실의 신임을 받으며 약 45년간 정치 일선에 머물렀던 점이 후대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梅爾清(Tobie Meyer-Fong)의 『淸初揚州文化』(2004), 安東籬(Fiannace, Antonia)의 『說揚州: 1550-1850年的一座中國城市』(2007), 湯宇星의 「冒襄的

9) 청조는 왕사진을 양주로 파견하여 남다른 문학적 재능으로 양주 일대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漢族들의 울분을 다스리는 데 꽤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윌리엄 T. 로 저, 기세찬 역, 앞의 책, 58쪽.

遺民世界(三)-紅橋修禊:王士禛與水繪園雅集」(2000), 黃河의 「王士禛揚州期間의 詩歌思想」(2000), 賀萬里의 「文游·狂歡新·獨酌-揚州雅集의 三段論」(2012), 張小仲의 「清代“紅橋修禊”文學活動初探」(2013), 朱則傑의 「王士禛紅橋修禊考辨」(2015), 胡遂, 唐藝濤의 「紅橋修禊與清代士人之心態流變」(2015), 廬高媛의 「清代揚州“紅橋修禊”集會及其詩歌創作」(2016), 陸學松, 何宸의 「淺談清代揚州宴游文化」(2017), 徐方芳의 「王士禛在揚州期間文學活動研究」(2016) 등이 대표적 성과물이다. 대체로 왕사진을 주축으로 한 문인의 이집활동이 양주가 이후 경제문화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고 결국 왕사진이 정치가로 성공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양주에서 벌인 외연적 활동과 텍스트와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설명이 뒤따르지 않아 왕사진이 남긴 수많은 작품들이 제대로 그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면을 왕사진의 텍스트에서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요 연구 대상은 왕사진이 양주추관 시절에 주력하며 지었던 詩詞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漁洋精華錄集釋』의 약 307편을 주로 분석하고 『王士禛全集』의 『漁洋詩集』에 수록된 약 780여 수를 참고하겠다. 또 『衍波詞』 130여 수를 탐독할 것이다. 이 밖에 『漁洋詩話』, 『池北偶談』, 『香祖筆記』, 『居易錄』, 『古夫于亭雜錄』 등에서 양주시기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참고할 것이다. 왕사진의 시기별 행적과 교유관계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 蔣寅의 『王漁洋事迹征略』도 중요 자료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신운설을 계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지 않고 동시대 주변인과의 통합 관계 형성을 위한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텍스트에 근거하여 양주의 성장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문학적 특징들을 확인할 것이다. 왕사진이 끊임없이 주변 인물들과 소통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지식인 양성에 일조했음을 살필 것이다. 이로써 청대 중간층의 확대와 도덕적 개인이 아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을 형성하는 단초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본론

### 1) 지역특성의 부각과 지역연대감 조성

양주추관시기 왕사진 작품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기유시의 다작이다. 揚州府 경내,<sup>10)</sup> 南京, 蘇州, 常州 등지가 주요 장소인데 양주는 지역 요충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남경은 명대 수도여서 여전히 지방행정지의 기능이 있었다. 산수풍경, 생활상, 지역인물, 역사적 사건과 인물, 명승지 등을 소재로 적극 활용했는데 부임한 첫해와 이듬해에 유독 많은 작품을 남겼다.

1660년에 양주에 오자마자 江淮지역을 다녀왔고 8월에는 江南鄉試同考試官을 맡아 남경으로 가면서 眞州, 燕子磯, 弘濟寺 일대를 지나며 기유시를 지었는데 이때의 작품을 모아 『白門集』을 엮었다. 11월에는 공무로 강남일대를 가서 高郵, 常州, 鎮江, 金山, 丹陽, 毗陵, 鶴林寺, 招隱寺, 竹林寺, 生生庵을 다녔고 다시 焦山, 京口, 北固山, 甘露寺를 돌며 題銘과 시를 지었다. 이 때 지은 40여 편을 『過江集』으로 간행한 후 다시 『白門集』과 합쳐 『庚子詩』 3권을 만들었다.

1661년에는 정월 말부터 소주 여행을 시작하여 鎮江, 呂城, 毗陵, 常州, 梁溪를 거쳐 蘇州의 虎丘, 閻闔廟, 五人墓 등의 명승지를 다니고 다시 楓橋, 寒山寺, 太湖, 漁洋山, 米堆山, 四宜堂을 거쳐 無錫의 惠山寺, 春申壩, 第二泉을 다니고 양주로 돌아와서 총 60여 편의 작품을 묶어 『入吳集』을 만들었다. 2월말에는 금릉에 갔다가 포의 丁胤의 집에 머물며 『秦淮雜詩』를 지었고 다시 진주로 가서 『眞州卽詞』를 지었는데 여기에 창화한 45수를 엮어 『鑾江唱和集』을 엮고 자서도 덧붙였다. 그리고 1661년의 시들을 정리하여 『辛丑詩』를 만들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 지었다는 당대 오칠언 근체시선집 『神韻集』도 이때 만들어졌다. 이후로도 해마다 시집을 간행하여 1662년에는 『壬寅集』, 1663년에는 『癸卯集』, 1664년에는 남경에서 지은 유기시와 1661년에 금릉에 갔을 때 지은 시집 1권을 합쳐 『後白門集』을 만들었다.

10) 泰州, 通州, 高郵와 江都縣, 如臯縣, 儀徵縣, 泰應縣, 寶應縣, 興化縣이 있었다.

이러한 기유시들은 왕사진이 직접 목도한 실경을 위주로 하였다. 왕사진이 방문하게 되는 주요 명승지는 역사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었는데 현지인들에게는 더없이 친숙한 장소이자 삶의 터전이었다. 왕사진은 주로 배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도착할 무렵에 만나게 되는 나루터, 인가 및 주변의 광경은 종종 안개가 자욱하거나 흐린 저녁때가 많았다. 양주는 대운하가 지나가는 지역 특성상 안개, 비, 바람, 배, 나루터 등이 혼한 광경이었고 이런 이유로 그의 작품에는 흐릿하고 뿌연 강가 주변의 모습 등이 자주 등장하였다.

왕사진은 실재를 중시하고 과장된 수식을 경계하였다. 그가 마주한 실경은 종종 안개가 덮여 있어 시각적으로 불분명했다. 이것은 종종 현실과 거리감을 만들고 애상에 빠지게 만들며 역사적 상흔을 소환시키기도 하였다. 멀리는 수, 동진의 패망 그리고 한때 명성을 떨치며 살다간 이들의 부재를 되뇌었고 가까이서 명조의 멸망을 묘사하고 청조의 탄압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위로도 주저하지 않았다. 양주와 남경은 亡國之恨, 亡國之思를 떠올리게 만드는 대표 지역이었다. 예를 들어 다음의 「冶春絕句」其十은 명나라 충신인 史可法(1601-1645)을 떠올리며 지은 것이다. 1645년에 그는 양주에서 청나라 豫親王과 싸우다가 붙잡혀 죽었는데 그의 주검을 찾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이 梅花嶺에 무덤을 만들어주었다. 왕사진은 그 참혹했던 현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當年鐵炮壓城開, 그해 철포로 성을 압박해서 열었는데  
折戟沈沙長野草, 끊어진 창은 모래에 파묻히고 긴 들판엔 이끼뿐이네.  
梅花嶺畔青青草, 매화령가 푸른 풀들이  
閑送遊人騎馬回, 한적히 나그네 말 타고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네.

왕사진은 청조에 대항하다 죽은 사가법을 위로하며 명조의 패망을 서글퍼하였다. 이것은 남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雨後觀音門渡江」에서 왕사진은 '상심의 역사(傷心史)'가 되어버린 남경의 참담함을 부각시키고 자신도 함께 현지인의 서글픔을 나눴다.

飽掛輕帆趁暮晴, 가벼운 돛을 한껏 걸고 비 개인 저녁을 쫓으니  
 寒江依約落潮平. 차가운 강물은 어렴풋이 썰물이 잔잔하네.  
 吳山帶雨參差沒, 오 땅의 산은 비를 머금어 들쭉날쭉 사라졌고  
 楚火沿流次第生. 초 땅의 불빛은 강물을 따라 차례로 생겨나네.  
 名士尙傳麈尾渡, 명사들은 백우선 흔들던 것을 아직도 전하고  
 踏歌終怨石頭城. 답가는 끝내 석두성을 서글퍼하네.  
 南朝無限傷心史, 남조의 끝없는 상심의 역사여  
 惆悵秦淮玉笛聲. 애절한 진회의 옥피리 소리여.

이처럼 왕사진은 양주와 남경 지역이 지니고 있는 패망과 파멸한 순간을 은폐하지 않았고 그 상실감을 나누었다. 이러한 태도는 지역민들과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의 중요한 장소나 관련 인물의 행적이 복원되기도 하였는데 양주의 上方禪智寺를 예로 들 수 있겠다. 『揚州畫舫錄』에 따르면 상방선지사에는 三絕碑, 吳道玄이 그린 寶誌의 초상, 이백의 讚, 顏真卿의 글씨, 소식의 「次韻伯固游蜀岡送李孝博使嶠表」 등이 새겨져 있었다.<sup>11)</sup> 역대 유명인들이 다녀간 곳으로 양주의 문화적 전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왕사진 역시 이곳을 찾았고 소식의 시에 차운하여 다음의 「上方寺訪東坡先生石刻詩次韻」을 지었다.

昔出蜀岡道, 簞藥鳴秋禪. 옛날 蜀岡의 길에서 나와, 낙엽 속에서 가을 매미가 울었네.  
 今來上方寺, 錄萼破春烟. 지금 상방사에 오니, 푸른 꽃받침이 봄 안개를 가르네.  
 坦步寶帶側, 延眺隋城巔. 보대강 옆을 편히 거닐다, 隨城의 꼭대기를 연이어 보네.  
 古刹龍象寂, 殘碣蛛絲懸. 옛 사찰 불상은 적막하고, 남은 석각엔 거미줄이 걸렸네.  
 緬思峨嵋人, 文采眞神山. 아미인을 아득히 그리니, 문체는 정말로 신선 같았네.  
 贈詩日南使, 賓佐皆豪賢. 일남사에게 시를 보냈는데, 막료가 모두 호걸과 현인이구나.  
 邈然竟終古, 漱墨留春泉. 아득히 결국 까마득해지고, 묵적만 제일천에 남겨두었네.  
 老筆欲飛動, 妙態殊硬娟. 오랜 필체는 날아가려나듯, 고운 자태는 매우 가볍고 예쁘네.  
 空堂響人語, 柿合飛緜翩. 빈 당에서 사람소리 울리니, 비둘기들이 날아오르네.  
 後游慨今昔, 憑吊當同然. 후대 길손이 고금을 탄식하니, 고인을 애도함은 분명 같으리.

이후 양주추관을 그만두고 떠나던 해에는 소식의 석각을 方丈의 벽에 끼워 넣

11) 이두 지음, 홍상훈 외 역, 『揚州畫舫錄1』, 서울: 소명출판, 2010, 35-36쪽.

도록 일을 추진하고 이를 기념하여 또 시를 지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화창하여 『禪智唱和集』 1권을 엮었다. 그리고 건륭 41년(1776)에는 양주자사 謝啓崑과 전운사 朱孝純이 화창하여 둘에 새겼고 여기에 화창한 시들을 모아 『續禪智唱和集』 1권을 만들었다.<sup>12)</sup> 이렇게 전대의 사라져가던 유물들은 물질적 형태의 재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이용한 창화의 형태로도 복원되어 지역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현지인으로부터 지역과 관련된 일을 듣고 작품에 반영한 일도 있었다. 예를 들면 1661년 2월말에 왕사진이 금릉으로 갔다가 포의 丁胤의 집에 머물렀는데 秦淮지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전해 듣고 「秦淮雜詩」를 짓게 되었다. 다음 汪琬(1624-1691)의 「白門詩集序」에 그 전후 배경이 나타나 있다.

“왕사진이 다시 남경에 이르러 포의 丁胤의 집에서 머물렀다. 정씨는 대대로 집안이 진회에 살았는데 邀笛步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다. 왕사진이 기뻐하고 결국 그 사이를 오가며 시를 지었다. 정운은 나이가 78세인데 젊어서부터 소리의 기예를 익혔고 肅현의 潘之恒, 북청의 林古度와 놀면서 제일 친해졌고 여러 번 南曲을 보러 다니다가 마상란과<sup>13)</sup> 사완재의<sup>14)</sup> 무리도 만났기 때문에 왕사진에게 곡에 전해지고 있는 일을 자세히 말해 줄 수 있었는데 흥미진진하여 지루하지가 않았다. 왕사진이 마음으로 더욱 좋아하여 곧 그 말을 모아 「진회잡시」에 넣었다.”<sup>15)</sup>

위의 문장에 따르면 왕사진은 남경에서 정운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는 포의 출신

12) 이두 지음, 홍상훈 외 역, 앞의 책, 53-55쪽.

13) 馬湘蘭(?-?): 지금의 강소성 남경 사람으로 진회에서 살았다. 이름은 守眞, 자는 湘蘭 혹은 月嬌이다. 顧橫波, 董小宛, 卞玉京, 李香君, 寇白門, 柳如是, 陳圓圓 등과 '秦淮八艷'으로 불렸다. 강남 재자 王稚登과 각별한 사이였고 그에게 보낸 편지가 『歷代名媛書簡』에 실려 있다. (<https://baike.baidu.com/item/馬湘蘭/1010630?fr=aladdin>)

14) 沙宛在(?-?): 明人이고 이름은 彩妹, 자는 未央, 호는 葉妓이다. 악기 연주와 시에 뛰어났다. (<https://baike.baidu.com/item/沙宛在/3939952?fr=aladdin>)

15) “貽上再至白門，館於布衣丁繼之氏，丁故家秦淮，距邀笛步不數弓。貽上心喜，遂往來賦詩其間。丁年七十有八，爲人少習聲伎，與歙縣潘景升，福清林茂之遊最稔，數出入南曲中，及見馬湘蘭、沙宛在之屬，故能爲貽上縷述曲中遺事，娓娓不倦。貽上心益喜，輒掇拾其語入秦淮雜詩中。” 王士禛 著，李毓芙，牟通，李茂肅 整理，『漁洋精華錄集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9年，235쪽.

으로 潘之恒,<sup>16)</sup> 林古度<sup>17)</sup>와 사이가 각별했고 자주 南曲을 보러 다니며 당시 유명한 기녀들을 만나 남경에 유행했던 곡조나 관련 일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 그의 집은 ‘邀笛步’와 가까웠는데 옛날 교방이 있던 곳으로 청대에도 여전히 기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사진은 이곳을 정윤과 함께 다니며 그에게 지난날 남경의 풍류문화를 전해 들었던 것이다. 그의 작품 가운데 「秦淮雜詩」其九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舊院風流數頓楊, 구원의 풍류로 頓文과 楊玉香을 손꼽는데  
梨園往事淚沾裳, 이원의 지난 일에 눈물이 치마를 적시네.  
樽前白髮談天寶, 술잔 앞에 두고 백발로 천보 연간을 얘기하니  
零落人間脫十娘, 쇠락한 인간세상의 탈십랑이로구나.

‘舊院’은 지금의 남경에 있는데 명대에 기루가 있던 곳이며 ‘頓楊’은 당시 名妓였던 頓文과 楊玉香을 가리킨다. 명대에 남경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기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천보 연간처럼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기녀 ‘脫十娘’도 이제는 세월 속에 덧없이 늙어버렸음을 탄식하였다. 작품으로 짐작컨대 왕사진은 정윤과 함께 ‘脫十娘’을 만난 것으로 보이며 이후 『池北偶談』의 『談藝』편에서도 「脫十娘, 鄭妥娘」<sup>18)</sup>이라 하여 그녀에 대해 소개한 바가 있다. 이로써 왕사진은 현지인과의 교류로 남경의 풍류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왕사진은 해당 지역인들에게 익숙한 풍경, 일화, 인물들을 자주 작품에

16) 潘之恒(1536?-1621): 자는 景升이고 호는 鸞嘯生이다. 安徽 歙縣, 巖寺 출신으로 금릉에 살았다. 嘉靖 연간에 中書舍人에 올랐으며 명대 희곡평론가이자 시인이다. 湯顯祖, 沈璟 등과 친했다. 저서로 『敍曲』, 『吳劇』, 『曲派』, 『涉江集』 등이 있다. (<https://baike.baidu.com/item/潘之恒>)

17) 林古度(1580-1666): 자는 茂之이고, 호는 那子이다. 福建 福清 출신으로 금릉에서 살았다. 시에 뛰어났고 鍾惺, 譚元春과 돈독했다. 명이 망하면서 가산을 잃고 가난하게 살았다. 만년에는 왕사진과 교류했고 왕사진이 『林茂之詩選』2권을 만들어주었다. (<https://baike.baidu.com/item/林古度>)

18) 금릉의 옛 교방에는 頓과 脫의 성을 가진 기녀들이 있는데 이들은 원나라 출신이었다. 순치 말년에 왕사진이 남경을 찾았을 때는 이미 여든이 넘었는데 만력 연간에 北里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전해졌다. 王士禛 著, 袁世頌 主編, 『王士禛全集4』, 『池北偶談』, 濟南: 齊魯書社出版, 2007, 3123쪽.

등장시켰는데 이러한 소재는 이방인과 토착민의 경계를 허물고 친근한 정서를 유발시키는 데 용이하였다. 다음의 「眞州絶句」其四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다.

江干多是釣人居, 강가에는 어부들의 거처가 많은데  
柳陌菱塘一帶疏, 버드나무 두렁과 마름 못은 일대가 탁 트였네.  
好是日斜風定後, 좋은 건 석양에 바람이 잦아든 후에  
半江紅樹賣鱸魚, 강 가운데 단풍나무 아래서 농어를 파는 것이네.

왕사진은 평범하고 소박한 강가의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해질 무렵 농어를 하는 모습에 입맛을 다시는 듯하다. 동진시기 張翰은 가을이 되자 농어회를 떠올리며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지만 여기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농어를 파는 활기찬 모습이 몹시도 인상 깊었음을 나타내었다. 푸근한 여운을 전하는 이 시는 패망의 역사도, 현재의 순간도 관조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즐기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애착을 갖게 된 장소로는 蘇州의 漁洋山이 첫째일 것이다. 「自米堆山下行至上陽村錢家壩望湖中漁洋法華諸山」은 蘇州를 여행하면서 지은 것인데 이때 ‘漁洋山’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자신의 자호로 삼았다고 한다.

杖策信忘疲, 行行畫圖裏. 지팡이에 실로 피로를 잊고, 걷고 걸으니 그림 속  
인듯하네.  
崎嶇下雲壑, 蒼茫望煙水. 가파른 아래 구름 낀 계곡, 아득히 안개 낀 강물  
바라보네.  
石徑何盤紆, 疎籬照梅蕊. 돌길 어찌나 구불거리고, 성긴 울타리 매화 꽃술  
비추네.  
寥落重湖濱, 柴門數家市. 적막함에 무거운 호숫가, 사립문의 여러 가게.  
居人太古風, 但解數鷄豕. 주민들 너무 예스럽고, 그저 여러 닭, 돼지를 풀어  
놓았네.  
語我種植法, 敦樸有奇理. 내게 종식법을 말하는데, 순박함에 기이한 이치가  
있네.  
雖非角里儔, 頗謂桃源比. 각리의 짝은 아니어도, 자못 도원과 비슷하다 하  
네.

透迤到湖滯, 浩渺歎觀之.	구불구불 호숫가에 이르니, 아득하여 탄식하며 바라보네
震澤控三江, 波瀾此方始.	태호가 삼강을 당겨, 파도가 여기서 시작되는 듯.
法華表東陲, 漁洋正相似.	법화산이 동쪽 끝에서 나타나니, 어양산과 아주 비슷하네.
煙雨春空濛, 峰巒暮傲詭.	안개비로 봄 하늘 뿌옇고, 봉우리로 해가 지니 특이하네.
昨朝梵天閣, 遠眺如隱几.	어제 아침의 범천각은, 멀리 보이는데 마치 안석에 기댄듯.
豈知方丈山, 忽落芒鞋底.	어찌 알았으리 방장산이, 홀연 신발 아래로 떨어진 것을.
欲乞五湖長, 垂釣將已矣.	오호의 장관을 구걸하여 낚시하며 장차 생을 마치고 싶네.

왕사진은 미퇴산에서 내려와 상양촌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일상을 보며 답소를 나는 후 제방에서 호숫가에 비치는 어양산, 법화산 등을 바라보며 오호를 다스리는 관리의 자리를 얻어 평생토록 낚시나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원하였다. 주저 없이 어양산을 자신의 호로 삼으며 이때의 감회를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작품으로 옮겨진 양주 혹은 주변 지역의 경물은 왕사진과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공통분모가 되어 친밀한 정서에까지 도달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들은 왕사진이 바라본 ‘현재’의 모습에 치중되었다. 특히 기유시의 경우 각 지역의 진귀한 풍경을 생동적으로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자연산수에 나타나는 불변의 모습을 강조하여 역사의 흥망성쇠에 단련된 공간으로 인식시켰다. 왕사진은 상훈의 도시들을 기행하고 아직도 그 슬픔으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대하면서 함께 위로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을 도피하거나 혹은 절망, 고뇌, 비장한 기운으로 빠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체로 평온하고 담백한 묘사가 특징인데 담담함이나 안정감을 느끼게 하였다. 동시에 지난 시절 풍요로웠던 기억도 함께 재생시키며 인류가 가지고 있는 패망의 깊은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것은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는 지역축제의 참여, 흥교 등의 공동체 문화, 풍류 문화의 마련으로 구체화되었다.

## 2) 紅橋 修禊를 통한 문인 풍류문화 활성화

왕사진은 낮선 타향 양주에서 남경, 소주, 진강 등의 지역 이동이 있을 때에는 더욱 해당 지역의 산수풍경, 명승지, 생활상들을 지면으로 옮기는 데 힘썼다. 그 결과물은 시집으로 간행되어 주변인들과 공유되며 지역민들과 친밀감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작용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왕사진의 문인적 자질을 알리는 기회가 되어 상당수 지역문인들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시집 출간에서 머물지 않고 1662년, 1664년에 마련된 홍교 수계로 진척되었다. 이 문화행사는 지역적 공간의 경계를 넘어 왕사진을 축으로 한 문인공동체를 가시화시키고 동시에 전통적인 문인문화를 부흥시키는 일이었다. 청조의 관인이라는 왕사진의 신분은 문인문화의 구성원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희석될 수 있었다. 다음 문장은 『양주화방록』에서 인용한 왕사진의 「紅橋 游記」인데 당시 홍교의 모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진회문을 나서 소진회를 따라 구부러져 북쪽으로 향하면 비탈과 언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대나무와 나무들이 울창하였다. ... 작은 배를 상앗대질하여 강을 따라 서북쪽으로 가면 숲 아래로 다한 끝에 완연히 다리가 있었다. 마치 드리운 무지개 아래 계곡에서 마시는 듯하고 또 미인이 단장하고 거울에 비추는 듯한데 이른바 홍교이다.”<sup>19)</sup>

왕사진은 홍교의 주변풍경과 뱃길을 따라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홍교를 무지개와 여인에 비유하여 그 아름다움을 극찬하였다. 왕사진은 특별한 때가 아니더라도 자주 이곳을 찾아와 사람들과 어울렸다.

“내가 젊은 시절 광릉에 있을 때 매년 공사가 한가해지면 번번이 손님들을 불러 홍교에 배를 띄우고 袁于令 여러 사인들과 시를 지어 “綠楊城郭是揚州”란 구절이 있었는데 江淮지역 사이에서 취하여 그림으로 만들었

19) “出鎮淮門，循小秦淮折而北，陂岸起伏，竹木鬱鬱，... 擊小艇循河西北行，林下盡處，有橋宛然，如垂虹下飲于澗，又如麗人靚粧照明鏡中，所謂紅橋也。” 이두 지음, 홍상훈 외 역, 앞의 책, 303쪽의 원문참고 번역 수정.

다.<sup>20)</sup>

왕사진은 이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변 지역인의 참석을 유도한 수계 행사를 마련하였다. '修禊'는 상사일에 강가에서 몸을 씻으며 재앙을 없애고 질병을 막고자 했던 종교 의식의 일종이었다. 그런데 위진 이후로 점차 연회의 성격이 짙어지면서 수렵, 낚시, 시가 창작 등의 오락 활동이 많아지게 되었다.<sup>21)</sup> 東晉 永和 9년(353)에는 會稽太守 王羲之가 마련한 蘭亭 시회가 계기가 되어 문인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상사일, 한식, 청명절로 이어지는 절기는 문인문화의 중요한 축제기간이었다. 왕사진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축제를 이용하여 주변 지역의 문인들을 소집하였다. 그 첫 번째는 강희 원년(1662)의 홍교 수계로 왕사진은 「浣沙溪·紅橋同蔭庵茶村伯璣其年秋崖賦」<sup>3闕</sup><sup>22)</sup>을 지었는데 첫째, 둘째 작품에는 명대 유민의 亡國之恨의 정서를 크게 반영하였다.

北郭清溪一帶流，紅橋風物眼中秋，綠楊城郭是揚州。  
西望雷塘何處是？香魂零落使人愁，淡煙芳草舊迷樓。（其一）  
북쪽에 청계가 띠처럼 흐르고, 홍교의 풍물은 보이는 것이 가을인데,  
푸른 버드나무가 있는 성곽이 양주라네.  
서쪽으로 뇌당을 바라보는데 어디쯤인가? 미인의 혼이 영락하여 사람을  
을 시름겹게 하니, 옅은 안개 향기로운 풀 사이로 옛 迷樓가 있도다.

白鳥朱荷引畫橈，垂楊影裏見紅橋。欲尋往事已魂銷。  
遙指平山山外路，斷鴻無數水迢迢。新愁分付廣陵潮。（其二）  
흰 새, 붉은 연꽃이 채색된 노를 당기고, 수양버들 그림자 속으로 홍교

20) “余少時在廣陵，每公事暇，輒召賓客汎舟紅橋，與袁荊州于令諸詞人賦詩，有‘綠楊城郭是揚州’之句，江淮間取作畫圖。” 王士禛著，袁世碩 主編，《王士禛全集6》，『漁洋詩話』卷上，濟南：齊魯書社出版，2007，4752쪽.

21) ‘수계’는 夏나라 달력 3월 上巳일에 행해지는 ‘春禊’와 7월 14일에 행해지는 ‘秋禊’가 있다. 『周禮』에 따르면 무녀가 질병을 없애려는 종교적 의식이었는데 위진 이후로 가면서 오락적 성격이 강해졌다고 한다. 강필임, 「東晉『蘭亭詩』연구: 兩晉 士人の 생명관 · 은일관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제23집, 2001, 94-95쪽.

22) 王士禛 著，袁世碩 主編，《王士禛全集3》，『衍波詞』 권1，濟南：齊魯書社出版，2007，1472-1473쪽.

가 보이니, 지난 일을 찾으려 하자 벌써 슬픔에 넘어 나갔네.  
아득히 平山堂을 가리키니 산 밖으로 길이 있고, 무리 잃은 기러기 무  
수하고 강물은 아득하니, 갓 생긴 서글픔을 양주의 조수에 나눠주네.

綠樹橫塘第幾家, 曲欄杆外卓金車. 渠農獨流越溪紗.  
浦口雨來虹斷續, 橋邊人醉月橫斜. 棹歌聲裏采菱花. (其三)  
푸른 나무 가로지른 연못으로 몇 번째 집인가? 굽이진 난간 밖으로 높  
은 금빛 수레 있는데, 그녀 홀로 월계에서 비단을 짜는구나.  
포구에 비가 내려 무지개가 끊어졌다 이어지고, 다리가로 사람들은 취  
해있고 달은 비스듬히 기우는데, 뱃노래 소리 속에 마름풀을 따는구나.

세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있다. 첫 번째는 눈앞의 雷塘과 迷樓를 보며  
수양제가 미녀들과 보냈던 화려한 시절이 결국 영락하였으니 흥망성쇠가 모두 덧  
없음을 말하였다. 여기에는 명대 유민의 서글픔도 함께 반영한 것인데 두 번째 작  
품에서 ‘魂銷’을 써서 절망감의 깊이를 더했다. 수계를 빌어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패망의 고통을 함께 하며 서로를 위로하였고 이로써 홍교와 평산당은  
망국의 서러움을 함께 나눴다는 상징적 기호를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 작품에는 앞서 두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노골적인 망국의 서러움이 나타  
나 있지 않고 西施를 떠올리며 강가 주변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두 번째 작품과  
연결 지어 본다면 양주의 조수와 함께 망국의 설움을 실려 보낸 후 석양 무렵 강가  
주변의 모습을 담담히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홍교 수계는 1664년에 이루어졌다. 이를 기념하여 왕사진은 「冶春絶  
句」20수를 지었다.<sup>23)</sup> 서문에서는 “林古度 선배, 杜濬, 孫枝蔚, 張綱孫, 程邃, 孫  
默, 許承宣, 許承家와 함께 홍교에서 수계하고 술자리에서 아춘시를 지었다.”  
고<sup>24)</sup> 하여 모임에 참석한 이들의 이름을 밝혔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王士禛 著, 袁世碩 主編, 『王士禛全集1』, 『漁洋詩集』의 385쪽에는 전체 20수가 모두 수록  
되어 있다.

24) “同林茂之前輩, 杜于皇, 孫約人, 張祖望, 程穆倩, 孫無言, 許力臣, 師六修禊紅橋, 酒間賦  
冶春詩,” 王士禛 著, 袁世碩 主編, 위의 책, 385쪽.

내 용	작 품
홍교 주변 풍경 홍교 수계 풍경	其一, 其三, 其四, 其五, 其六, 其十八, 其十九
홍교 수계 감회	其九, 其十, 其十一, 其二十
과거 인물 회고	其二(隋皇墓), 其七(隋宮殿), 其八(구양수, 소식), 其十二(史可法: 청대), 其十六(張紳, 鄒迪光: 명대)
교유 인물 묘사	其十二(林古度), 其十五(杜濬) 其十四(張綱孫, 孫枝蔚, 許承宣, 許承家, 程邃, 孫默)

2년 전 첫 번째 홍교 수계에서 지었던 작품들이 주로 양주, 홍교, 망국의 슬픔에 중점을 두었다면 「冶春絕句」는 봄날의 풍류에 초점을 두고 경물 묘사에 치중되었다. 其一에서는 무수히 핀 도화꽃을 묘사하며 봄날 향연의 서막을 열었다. 其三에서는 홍교 주변으로 시선을 옮겨 주변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 其三

紅橋飛跨水當中, 홍교가 날아가듯 지나가니 강물이 가운데에 있고  
一字闌干九曲紅. 일자 난간에 아홉 구비 붉은 색이네.  
日午畫船橋下過, 낮에 화선이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데  
衣香人影太匆匆. 옷의 향기와 사람 그림자가 꽤나 바쁘구나.

강물을 두고 날아갈 듯 놓인 홍교, 그 아래로 화려한 놀잇배가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풍기는 향기와 바빠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며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 홍교 주변의 풍경, 사냥을 하는 젊은이들, 술자리 모습 등이 其四, 其五, 其六에 연이어 묘사되었다. 홍교 주변에 있는 과거의 공간 또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예를 들면 '隋皇墓'(其二), '隋宮殿'(其七), '平山堂'(其八), '梅花嶺'(其十三)이 있는데 이미 사라진 이들에 대한 감개를 보였다. 그 가운데 其八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 其八

髯公三過平山下, 소식이 평산당 아래로 세 번을 찾아와서  
白髮門生感故知. 백발의 문생이 옛 지기 구양수를 생각했지.

欲覓醉翁呼不起, 구양수를 찾고자 하나 불러도 일어나지 않고  
碧虛樓閣草離離. 푸른 비단 창외 누각엔 풀만 무성하구나.

불멸의 제국이 존재하지 않기에 생성과 소멸은 늘 함께 이어져 왔고 그로 인한 그리움도 끊이지 않음을 말하였다. 구양수를 그리는 소식처럼 자신 또한 선현들을 떠올렸다. 평산당은 부재한 이에 대한 회고로 서글픔을 주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정겨움이 느껴지는 그런 현재의 모습도 마주하게 되는 곳이다. 이에 대한 감회를 其九와 其十에서 나타내었다.

其九  
東風花事到江城, 동풍에 꽃구경으로 강가 성에 이르니  
早有人家喚賣餚, 아침에 인가에서 옛 파는 이를 부르네.  
他日相思忘不得, 훗날에도 그리워 잊지 못할 터,  
平山堂下五清明, 평산당 아래서 다섯 번째 청명절이라네.

썩쓸한 과거는 이름답고 따뜻한 현실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풍류 속에서 흐릿해 질 수 있었다. 다섯 해를 보낸 지금에 왕사진은 양주의 삶에 대해 애착을 보였다.

그리고 其十에서 “강남은 끝도 없고 청산이 좋으니, 곧 여러 사람들과 삼을 지고 가네.(江南無限青山好, 便與諸君荷鍤行)”라고 하였다. 강남의 청산이 너무도 좋으니 여러 사람과 함께 劉伶처럼 삼을 메고 다니며 술을 마시다 죽어도 좋게 다고 하였다. 왕사진은 고인에 대한 회고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이들과 함께 풍류를 즐길 것을 나타내었다. 이 각별한 우정은 其十二, 其十四, 其十五에서 보여주었는데 참석자들의 재능과 특징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其十五는 모임에 나타나지 않은 杜濬(1611-1687)을 떠올리며 지은 것이다.

杜陵老叟窮可憐, 두릉 노인 가난하여 가련한데  
猶能斗酒詩百篇, 한 말 술에 시가 백 편이네.  
今朝何處墟頭臥, 오늘 아침 어느 술집에 누워있으니  
知有人家送酒錢, 누군가 술값을 보냈음을 알겠구나.

술을 좋아하는 두준은 술김에 시를 썼다 하면 백 편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게 늘 안쓰럽다고 했다. 오늘 약속에 오지 못한 것을 보니 술에 취해 어느 주막집에서 자고 있을 듯한데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 대신 술값을 갚아줬을 거라 짐작하였다. 두준의 성향을 이해하는 우정이 느껴지는 시이다. 마지막 其二十에서는 이렇게 돈독한 사람들이 모인 흥교 수계를 東晉의 王羲之(307-365)가 마련했던 蘭亭 수계에 비유하며 문인 풍류문화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永和之歲暮春月, 영화의 세월 늦봄에  
 王謝風流見典型, 왕씨, 사씨 가문의 풍류가 전형을 보였다.  
 好記甲辰布衣飲, 갑진년 포의의 술자리를 잘 기억하시게  
 竹西亭子是蘭亭, 죽서정이 난정이라네.

351년에 會稽內事를 맡고 있었던 왕희지는 늦봄 회계의 蘭亭에서 41명의 명사들과 연회를 가졌고 그때 지은 작품들을 『蘭亭集』으로 묶었다. 왕사진은 그 옛날처럼 왕씨와 사씨의 대단한 가문 출신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나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 역시 문인적 풍모나 자질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오랜 세월 강남에 뿌리내리고 있던 문인 문화의 전통을 양주에서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음을 자부하였다.

흥교 수계는 망국의 시련을 함께 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시 현실을 마주하여 풍류를 즐기려는 양가적 의미를 지녔다. 특히 두 번째 열린 흥교 수계에서는 망국에 대한 서글픔에서부터 봄날 화려한 만물, 양주의 아름다운 모습과 생활상, 자신과 돈독한 우정을 나눈 사람들을 전체 20수에 하나하나 모두 풀어내었다. 양주를 비롯한 강남 지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많은 문인들이 왕사진의 「야춘절구」에 화답하였고 이것은 후에 『阮亭甲辰詩』 1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여 왕사진을 주축으로 한 문인공동체가 입체화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시학, 풍류문화, 삶의 철학 등이 확산될 수 있었다.

중국 고대의 축제들은 모두 역사적이고 계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양주는 주변 도시인 남경과 소주에 비해서 그러한 요인이 적었다. 왕사진의 흥교 수계는

양주에 전통적인 문인 풍류문화를 부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왕사진의 시가창작에 대한 열의가 바탕이 되었다. 양주추관의 초기였던 1660-1661년에 양주와 그 외 주변도시를 다니며 시가창작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사람들을 자신의 지역으로 소집시켜 시사창작을 활성화시키고 문인 풍류문화의 후원자이자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였다. 참가자들은 왕사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상에 힘입어 자신의 시문 창작 능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이후 孔尙任(1648-1718)과 盧見曾(1690-1768)이 계승하여 양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고 晩淸시기에는 冶春詩社의 뿌리가 되었다.

### 3) 다양한 텍스트 활용으로 문인공동체 확대와 지식인 양성

왕사진은 시, 사, 그림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다양한 기호를 가진 이들과 교류하였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각자의 예술 취향과 미적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로써 문인의 풍류문화를 활성화시켜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이렇게 만난 문인들은 서로 탈정치적이고 개방적이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었다. 왕사진의 텍스트는 이들을 양주로 집결시키고 문인공동체를 이루는 데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다음의 문장을 보면 왕사진의 문화 활동은 양주 이전부터 있었으며 이미 시단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듯하다.

“내가 젊었을 때 濟南 明湖 水面亭에서 「秋柳」를 지었는데 일시에 화창한 자들이 심히 많았다. 이후 3년이 지나 양주에 관리로 있으니 강 남북의 화창자가 이보다 앞서 이미 수십 명이었고 규수도 많이 화창하였다.”<sup>25)</sup>

이러한 왕사진의 활동은 양주와 그 주변지역의 문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다만 청조의 관리라는 신분은 양주 땅에서는 충분히 적개심을 품

25) “余少在濟南明湖水面亭，賦「秋柳」四章，一時和者甚衆。後三年官揚州，則江南北和者，前此已數十家，閩秀亦多和作。”王士禛 著，袁世碩 主編，《王士禛全集6》，『漁洋詩話』，濟南：齊魯書社出版，2007，4752쪽.

을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주요인사, 지식인, 포의에 이르기까지 주변인들과의 관계망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문장에 따르면 교유대상이 양주추관 이후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왕사진의 많은 노력이 뒤따르고 있었다. 즉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였는데 序文, 論詩詩, 懷人詩, 小傳, 題畫詩 등에서 두르려졌다. 양주에 도착한 1660년부터 근 5년 동안 왕사진은 시가창작에 주력하였다. 양주추관으로 있는 5년 중에서도 처음 1-2년 사이에는 더욱 창작에 매진하여 1662년 5월에는 그간의 작품들을 모아 『漁洋山人詩集』 17권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고시 218수, 근체 1004수 약 1222수가 실려 있고 무려 26인의 서문이 덧붙여 있다. 서문을 쓴 26인에는 李元鼎, 黃文煥, 熊文舉, 李敬, 林高度, 趙士冕, 丁弘誨, 張九徵, 韓詩, 王澤弘, 蔣超, 吳國對, 葉方靄, 唐允甲, 顧宸, 汪琬, 施閔章, 冒辟疆, 魏學渠, 杜濬, 陳維崇, 杜濬, 程康庄, 趙韜退, 丘石常, 王士祿이 있다.<sup>26)</sup> 26인의 서문은 표면적이라 하더라도 양주에 온 이후 왕사진이 지역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또한 서문을 교환하여 교유관계를 성사시킨 예로 전겸익을 들 수 있겠다. 1661년에 왕사진이 포의 丁胤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水閣에 전겸익이 沈顥의 「秋柳」 절구에 대해 시를 쓴 것을 보고 그에 화답하여 「題丁繼之秦淮水閣和牧翁先生韻」을 지었다. 또 왕사진은 錢謙益의 생일이 오 땅으로 돌아가는 편에 전겸익에게 보내는 편지를 부탁하고 시집의 서문을 부탁하였다. 편지는 전해졌으나 서문은 바로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겸익의 80세 생일 때에 丁胤이 찾아갔는데 그때 「漁洋詩集序」를 써서 보내주었다.<sup>27)</sup> 이를 계기로 당시 시단의 원로였던 전겸익 역시 왕사진의 문인공동체 명단에 포함된 셈이 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論詩詩이다. 왕사진은 전겸익과 더불어 江左三大家였던 吳偉業(1609-1671), 龔鼎孳(1614-1673)와도 친분이 있었다. 공정자는 이미 북경에 서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오위업에게는 논시시를 보낸 적이 있었다. 1663년에 如臯로 가던 중에 「論詩絕句」 40수<sup>28)</sup>를 짓고 吳之願에 부탁하여 吳梅村에게

26) 蔣寅 著, 『王漁洋事迹征略』, 北京: 人民出版社, 2001, 84-85쪽.

27) 蔣寅 著, 위의 책, 62, 68, 74-75쪽.

부쳤다.<sup>29)</sup> 이듬해 吳梅村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논시절구」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다.

“시를 논함이 크게 일어 위아래로 옛날과 지금의 작품이 모두 옥 같은 기준으로 돌아가니 지금 이런 일을 당해 공이 아니면 누가 판단할 수 있겠 습니까?”<sup>30)</sup>

오위업은 위진부터 명대까지 긴 시대를 아우른 폭넓은 비평에 대해 칭찬하였다. 오랜 기간 강남 시단의 영수로 자리 잡고 있던 오위업에게 왕사진은 역대 시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논시시를 이용하여 담론을 유도하고 관계망을 확장하고자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論詩絕句』의 특징을 살펴보면 형식상으로는 모두 7언 절구로 이루어졌으며 曹丕, 曹操, 鍾嶸, 李白, 孟浩然, 杜甫의 뛰어난 주석가들(黃庭堅, 錢謙益, 盧世偉), 元結, 韋應物, 大曆시인, 이백의 악부, 두보, 元稹, 白居易, 張籍, 王建, 李商隱, 송대 황정견, 王安石, 歐陽脩, 원대의 楊維禎, 吳萊, 명대의 何景明, 李夢陽, 鄭善夫, 嚴嵩, 高叔嗣, 邊習, 邢侗 등인데 위진 시기부터 송, 원, 명 및 조선의 金尙憲까지 약 45명의 시인과 악부에 대해 논하였다. 여러 조대를 넘나들며 시인들이 가진 저마다의 특징에 대해 주목하였다. 종당이나 종송으로 파벌을 가르는 병폐에 반대하고 성당 시인에 치중하지 않고 황정견과 왕안석의 장점까지도 두루 언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맹호연이나 위응물을 강조함으로써 이백과 두보에 집중된 풍조를 경계하였다.<sup>31)</sup> 성당의 성취만 논하느라 송, 원, 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시단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명대까지 비평 대상을 넓혔다. 특히 명대 시인에 대해서는 12편이나 할애하였는데 명대가 시기상 최초

28) 『漁洋詩話』의 4752쪽에는 “余往如臯, 馬上成「論詩絕句」四十首.”라 하여 40수라고 되어 있으나 『王士禎全集1』의 『漁洋詩集』 권14에는 36수만 실려 있다. 나머지는 유실된 듯하다.

29) 蔣寅 著, 앞의 책, 100쪽.

30) “論詩大作, 上下古今, 咸歸玉尺, 當今此事, 非得公熟能裁乎?” 王士禎 著, 袁世碩 主編, 『王士禎全集6』, 『古夫于亭雜錄』 권3, 濟南: 齊魯書社出版, 2007, 4889-4890쪽.

31) 이동훈, 「王士禎의 문학풍조에 대한 탈보편주의적 인식 고찰」, 『中國學論叢』 46집, 2015, 96쪽.

와 맞닿아 있고 왕사진의 주변에 명조의 유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전철자를 비롯하여 그 외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중 徐禎卿에 대해 논한 其二十四를 보겠다.

文章煙月語原卑, 「문장연월」은 시어가 본래 비루하였는데  
一見空同迥自奇, 이몽양을 한 번 보더니 매우 절로 기이해졌다.  
天馬行空脫羈勒, 천마가 허공을 내달리며 굴레와 고삐에서 벗어나서  
更憐談藝是吾師, 더욱 『담예록』을 좋아하니 내 스승이라네.

첫 구의 「文章煙月」은 서정경이 젊은 시절에 쓴 작품이다. 왕사진은 그의 초기 작품은 비루하나 弘治 18년(1505) 이후에 이몽양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담예록』을 칭송하였다. 이 책은 자연스럽고 솔직한 감정 표현을 중시하였는데<sup>32)</sup> 『시품』, 『창랑시화』와 함께 왕사진의 사랑을 받았다.

『논시절구』는 논지가 정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비판 태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특정 시학 기준에 얽매이거나 몇몇의 유명 시인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시인들의 장단점을 공정히 분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파벌의 조성을 피하고 다양한 문인들을 자신의 문인공동체로 이끌어 자유롭고 객관적인 담론을 펼치도록 유도했다. 이런 맥락에서 왕사진이 강조한 ‘신운’은 분리가 아닌 통합을 지향하며 모방이 아닌 개별 시인들의 眞情 표출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懷人詩와 小傳이다. 왕사진은 양주에 있는 동안 강좌삼대가부터 포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는데 대다수가 포의 출신이었다.<sup>33)</sup> 『漁洋山人感舊集』이나 1661년에 지은 「歲暮懷人詩」60수<sup>34)</sup>에도 포의 작품이 상당수

32) 서정경은 명대 시풍의 쇠신을 위해 漢, 魏의 시를 중시하였다. 자연스럽고 솔직한 감정 표현을 강조하고 시인의 생각, 힘, 재능, 내용을 바탕으로 氣·聲·詞·韻 등의 격조를 갖추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해민, 「徐禎卿의 詩論과 詩」, 서울대 석사논문, 2016, 38-52쪽.

33) “내가 광릉에서 5년 있을 때 대부분 포의와 사귀었다.(余在廣陵卅年, 多布衣交)” 王士禎 著, 袁世碩 主編, 『王士禎全集6』, 『漁洋詩話』, 濟南: 齊魯書社出版, 2007, 4786쪽.

34) 『王士禎全集2』, 『漁洋詩集』 권12, 337쪽에 32수가 있고 『王士禎全集3』, 『漁洋集外詩』 권3, 622쪽에 19수가 실려 있다. 51수만 남아 있는 듯하다.

실려 있다. 다음 문장은 왕사진이 이들의 인품과 재능을 언급하며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인 張琴은 차분하고 조용하였다. 가행체를 지었는데 뛰어나 남다른 면서도 규칙을 잃지 않았다. 양주 사람들은 그가 시에 뛰어나다는 것을 몰랐다. 내가 그의 시를 『감구집』에 실었다. 장금은 강희 계축년 진사에 발탁되었으나 벼슬하지 않고 죽었다.”<sup>35)</sup>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는 소전 형식을 자주 이용했다. 출신, 인품, 작품 예시, 작품에 대한 평가 등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어양산인감구집』 같은 시선집이나 『池北偶談』의 『談獻』편 등의 필기류 작품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다음은 왕사진이 費密(1623-1699)의 작품에 대해 높이 평가한 얘기를 전해 듣고 그가 왕사진을 찾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일화이다.

“내가 광릉에 있었을 때 우연히 성도의 비밀 자는 차도였던 사람의 시를 보고 매우 칭찬하며 시를 지어 말하길 “... ‘큰 강은 한수로 흘러가고, 외로운 배가 남은 봄으로 이어지네.’ 열 자가 모름지기 오래 전해질 법한데 어찌 이 사람을 잃게 되었는가?”라고 하였다. 비밀이 마침내 와서 우정을 맺으니 마치 평생의 기쁨인 듯하였다.”<sup>36)</sup>

왕사진은 청대 동시인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탐독하고 뛰어난 작품에 대해서는 호평은 물론 자신의 문집에 실어주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라 시인들의 작품을 선별하고 정리하여 문집으로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는데 필요에 따라 왕사진을 찾아와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문장은 유민시인으로 명성이 높았던 林古度(1580-1666)가 자신의 시를 맡기고 선별하여 선집으로 엮어줄 것을 부탁한 내용이다.

35) “門人張桐峰琴，淵靜沈默。作歌行，踔厲風發，而不失規矩。揚州人無知其工詩者。余取其詩入『感舊集』。琴舉康熙癸丑進士，未仕卒。” 王士禛 著，袁世碩 主編，앞의 책，『漁洋詩話』，4804쪽.

36) “余在廣陵，偶見成都費密字此度詩，極擊節。賦詩云：‘...『大江流漢水，孤艇接殘春。』十字須千古，胡爲失此人?’ 密遂來定交，如平生權。” 王士禛 著，袁世碩 主編，위의 책，4753쪽.

“복청 林古度는 만력 연간 시인으로 조학전, 종성과 우정이 돈독했다. 명말 혼란한 이후 금릉 유산에서 살았는데 매년 내게 올 때마다 친히 섬겼다. 강희 갑진에 임씨가 그의 만력 갑진 이후 60년 동안에 지은 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작품을 가려 뽑아 달라고 하여 갑자년 이전의 시 백여 편만을 남겼다. 施閔章이 보고 “내가 임씨와 오래 사귀었으나 그의 시의 청신, 준일함을 몰랐는데 육조와 초당에 근원함이 이와 같구나”라고 말하였다.”<sup>37)</sup>

전체 내용은 임고도에 대한 짧은 소개와 함께 두 사람 사이의 왕래에 대해 말하였다. 임고도의 부탁으로 왕사진이 시선집을 만들었는데 청신하고 준일한 시풍이 돋보이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시단의 원로였던 임고도의 방문과 부탁은 두 사람 간의 돈독한 우정을 뜻할 뿐 아니라 왕사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것임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집을 간행하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시학 기준을 반영하고 동시에 문인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왕사진은 시선집의 간행 외에 제화시 창작에도 적극적이었는데 특히 1661년과 1662년에 많이 지었다. 대표적으로 「題靑溪遺事畫冊」이 있다. 이것은 1661년에 남경에서 丁胤의 집에 머물면서 진화에 관한 얘기를 들은 후 「진회잡시」를 짓고 화가를 불러 이를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다. 이 그림에 대해 왕사진이 「菩薩蠻·題靑溪遺事畫冊」八闕을 지었으며 陳維崧, 彭孫遜, 鄒祗謀 등이 화답하여 모두 84편의 사가 지어졌다. 특히 그림과 화론에 관심이 많았던 周亮工(1612-1672)에게는<sup>38)</sup> 1661-1662에 걸쳐 무려 40편에 이르는 제화시를 써 주기도 하였다.<sup>39)</sup>

37) “福清林古度茂之，萬曆中詩人，與曹南宮學佺、鍾學憲惺友善。難後居金陵乳山，每過余，親爲撰杖結襪。康熙甲辰，林攜其萬曆甲辰以後六十年詩詣余，求爲揀擇，僅存其甲子以前詩百餘篇。施愚山見之曰，‘吾交林翁久，不知其詩清新俊逸，源本六朝、初唐乃如此。’王士禛 著，袁世碩主編， 앞의 책, 『漁洋詩話』, 4754쪽.

38) 周亮工: 자는 元亮이고 호는 陶庵, 櫟園이다. 河南 祥符 사람이다. 崇禎 13년(1640)에 진사가 되고 監察御史를 지냈다가 청조에 출사하여 兩淮鹽法道, 福建布政使, 戶部侍郎 등을 지냈는데 누차 탄핵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사면되었다. 강희원년(1662)에는 복상이 끝난 후 靑州海道, 江安鹽糧道를 지냈다. 전각과 그림에 관심이 많아 화론집 『讀畫錄』을 지었다. (<https://baike.baidu.com/item/%E5%91%A8%E4%BA%AE%E5%B7%A5/1449744?fr=aladdin>)

39) “을사 여름 내가 청주 진의정에서 선생을 위해 화책에 시를 썼다. 이로 인해 신축년 양주에 있을 때와 임인년 진주에 있을 때를 떠올리니 전후로 선생을 위해 그림에 시를 쓴 것이

또 자수를 놓아 만든 그림에 화창하기도 하였다. 양주에 余氏에 字는 韞珠라는 여인이 자수 솜씨가 빼어났는데 왕사진에게 神女, 洛神, 浣紗의 자수화를 보내왔다. 왕사진은 「題余氏女子繡浣紗洛神圖二首」와 「浣溪沙·題余氏女子繡浣紗圖」, 「解佩令·題余氏女子繡洛神圖」, 「望湘人·賦余氏女子繡柳毅傳書圖」를 지었으며 여기에 陳維崧, 彭孫遜, 鄒祗謀 등이 화창하였다.<sup>40)</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왕사진은 서문, 논시시, 회인시, 소전, 시선집, 제화시 등의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주변인과의 관계망을 돈독히 하거나 확장시켰다. 또한 인재를 세상에 알리고 양성시키는 수단이기도 했다. 텍스트들은 모두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서로의 시문집에 서문을 실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지이며 인문적 후원 방법이었다. 논시시는 이분법적 분열을 경계하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지적 담론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제화시 역시 그러하다. 그림에 대한 비평과 감상은 그림을 보는 각도에 따라 끊임없는 담론과 또 다른 제화시를 생산해낼 수 있었다. 소전에 포함된 비평이나 시선집의 간행은 왕사진의 시학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로 문인적 자질을 인정해주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이었다. 회인시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구체적 증거로 이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텍스트의 활용은 정치 일선에 있는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을 모두 아우를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을 것이다.

### 3. 결론

중국사에서 청대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면 자본주의 맹아기를 이끌고 주자학에 대한 반성으로 ‘實事求是’를 강조한 실학이 출현함으로써 양명학에 이어 전통사회의 패러다임에 지속적인 균열을 가했던 물질적 번영기이자 사상적 변혁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지는 바로 강남 도시로 전에 없는 사회, 경제,

3-40편이 넘었다.(乙巳夏, 某在青州眞意亭爲先生題畫冊. 因憶辛丑在揚州, 壬寅在眞州, 前後爲先生題畫賦詩不下三四十篇)” 蔣寅 著, 앞의 책, 92쪽.

40) 王士禛 撰, 앞의 책, 『池北偶談』, 287쪽.

문화에 걸친 총체적인 발달을 보여주었는데 양주도 빼놓을 수 없다.

양주는 1644년 李自成의 난으로 명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후 이듬해 만주족의 대학살이 자행되었던 깊은 상흔의 도시로 왕사진의 첫 부임지이기도 하였다. 왕사진은 1660년부터 5년 동안 양주추관으로 있었는데 첫해부터 詩詞 창작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선보이며 적극적으로 지역 문인들과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소통의 수단으로 삼았다. 당시에 지은 작품의 큰 특징을 살펴보면 기유시가 많았다. 주로 양주, 남경, 소주, 진주 등지를 다니며 산수, 문물, 인물들을 작품의 제재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특성화시켰다. 왕사진이 직접 목도한 실경을 바탕으로 산수자연, 명승지, 각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혹은 인물, 지역민의 생활상 등을 묘사하였다.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이 내용들은 공통의 화제로 이용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양주가 처했던 아픔과 명조의 유민들이 품은 망국지한도 포함되었다. 당시 청조의 관리였으나 왕사진은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그로 인한 동족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였다. 이것은 왕사진이 갖고 있는 신분을 뛰어넘고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었다. 다만 격한 감정을 담은 작품은 드물었다. 즉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되 그것이 감정을 동요시킬 정도로 재차 자극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왕사진이 찾아다닌 공간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느끼게 하는 곳도 있지만 유쾌하고 정겨운 정서를 촉발시키는 공간도 있었다. 즉 명승지, 빼어난 산수경관, 소박한 일상의 터전에 대한 작품이 그러하다. 타지에서 온 왕사진은 새로운 지역을 탐색하며 때로는 공감을 때로는 애착을 표현하여 격양된 감정이나 충동을 순화시키고 지역민들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왕사진은 절기에 따라 紅橋, 平山堂 및 南京 등지를 두루 다니며 다채로운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또는 스스로 기획하기도 하였다. 즉 축제, 詩會, 주연 등의 오락 공간에서 풍류를 기반으로 한 군체적 모임을 조성하여 경직된 관계를 해소하고 시대, 민족, 신분을 초월한 동질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중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는 두 차례의 紅橋 修禊였다. 왕사진은 양주에서 홍교 수계를 마련하여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유관계를 맺었던 문인들을 결집시켰다. 이 축제는 왕사진을 축으로 한 문인공동체를 가시화시키고 문인의 풍류문화를 부흥시키

는 일이었다. 이후 孔尙任과 盧見曾이 뒤를 이어 주관하였고 晚淸의 冶春詩社로 계승되어 양주의 회복을 상징하는 풍류 문화가 되었다.

왕사진은 입체적인 모임 외에도 서문, 논시시, 회인시, 소전, 시선집, 제화시 등의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참여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다양한 계층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문인공동체를 확장시켰다. 특히 포의 출신에 대한 노력이 돋보이는데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후원자의 역할을 맡아 지식인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왕사진을 중심으로 문인공동체를 이뤘던 다양한 계급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은 양주를 예전의 풍류 도시로 회복시키는데 저변이 되었을 것이다. 왕사진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성공을 거듭하면서 강약을 달리하였으나 관직생활을 하는 45여 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토대 아래 문단의 영수라는 권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參考文獻〉

##### 1. 국내외 원전 및 주석서

- 王士禛 著, 袁世碩 主編, 『王士禛全集』, 濟南: 齊魯書社出版, 2007.  
 王士禛 著, 惠棟, 金榮 注, 『漁洋精華錄集注』, 濟南: 齊魯書社出版, 1999.  
 王士禛 著, 李毓芙, 牟通, 李茂肅 整理, 『漁洋精華錄集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王士禛 撰, 『池北偶談』, 北京: 中華書局, 1982.  
 章培恒 외 主編, 『王士禛詩選譯』, 南京: 鳳凰出版社, 2011.  
 송영주 저, 『王士禛詩選』, 서울: 문이재, 2004.

##### 2. 국내외 단행본

- 安東籬 著, 李霞 譯, 『說揚州: 1550-1850年的一座中國城市』, 北京: 中華書局, 2007.  
 蔣寅 著, 『王漁洋事迹征略』, 北京: 人民出版社, 2001.  
 蔣寅 著, 『王漁洋與康熙詩壇』, 南京: 鳳凰出版社, 2013.  
 林宛瑜 著, 『清初廣陵詞人群體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2010.  
 梅爾清 著, 朱修春 譯, 『清初揚州文化』,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5.  
 孫紀文 著, 『王士禛詩學研究』,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2008.

- 王夫之 等撰, 『清詩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王利民 著, 『王士禛詩歌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7.
- 王士禛 撰, 孫言誠 點校, 『王士禛年譜』, 北京: 中華書局, 1992.
- 王士禛 著, 『漁洋山人感舊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4.
- 吳宏一 著, 『清代詩學初探』,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6.
- 嚴迪昌 著, 『清詞史』,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0.
- 구범진 著,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서울: 민음사, 2012.
- 양운덕 著, 『미셸푸코』, 광주: 살림, 2003.
- 이무영 著, 『공간의 문화정치학』, 서울: 논형, 2005.
- F. 웨이크만 著, 김의경 譯, 『중국제국의 몰락』, 서울: 예전사, 1987.
- 금지아 著, 『神韻의 전통과 변용』, 광주: 태학사, 2008.
- 윌리엄 T. 로 著, 기세찬 譯, 『중국 최후의 제국』, 서울: 너머북스, 2014.
- 이두 지음, 홍상훈 외 譯, 『양주화방록』, 서울: 소명출판, 2010.
- 이시바시 다카오 著, 홍성구 譯, 『대청제국』, 서울: 휴머니스트, 2009.
- 저우스펀 著, 서은숙 譯 『揚州八怪』, 서울: 창해, 2006.

### 3. 국내외 논문

- 盧高媛, 「清代揚州“紅橋修禊”集會及其詩歌創作」, 『浙江海洋學院學報』 33집, 2016.
- 劉毛娟, 「王士禛「戲做元遺山論詩絕句三十二首」創作特色」, 『語文學刊』, 2010, 1月.
- 陸學松, 何宸, 「淺談清代揚州宴游文化」, 『揚州教育學院學報』 35집, 2017.
- 徐方芳, 「王士禛在揚期間文學活動研究」, 揚州大學 석사논문, 2016.
- 辛明玉, 「王魚洋文言小說研究」, 山東師範大學 박사논문, 2015.
- 葉君遠, 黃語, 「新舊文人的和諧唱和」, 『文史哲』 323집, 2011.
- 鄔國平, 「從香奩詩到神韻說」, 『復旦學報』, 2015, 第1期.
- 王 斌, 「論王士禛與『分甘餘話』」, 『絲線之路』, 2011, 第6期.
- 張麗麗, 「文化認同變遷中的王士禛與江南詩壇」, 『南通大學學報』 28권, 2012.
- 張小仲, 「清代“紅橋修禊”文學活動初探」, 『揚州教育學院學報』 31집, 2013.
- 趙 霞, 「朦朧·神祕·明朗·超然」, 『時代論壇』, 2018, 8月.
- 朱則傑, 「王士禛“紅橋修禊”考辨」, 『江蘇大學學報』, Vol. 17, 2016.
- 湯宇星, 「冒襄的遺民世界(三)-紅橋修禊:王士禛與水繪園雅集」, 『榮寶齋』, 2000.
- 賀萬里, 「文游·狂歡新·獨酌-揚州雅集的三段論」, 『藝術百家』 128집, 2012.
- 胡 遂, 唐藝濤, 「紅橋修禊與清代士人之心態流變」, 『湖南大學學報』 29집, 2015.
- 黃 河, 「王士禛揚州期間的詩歌思想」, 『學術研究』, 2000.

- 강필임, 「당대 사회의 통시적 변화: 上巳日 시회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80집, 2017.
- 강필임, 「東晉 「蘭亭詩」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23집, 2001.
- 김규선, 「통합의 시학, 왕사진의 시론과 사론」, 『동양고전연구』 35집, 2009.
- 김진영, 「王士禛詩論研究」, 서울대중문과 박사논문, 1992.
- 이동훈, 「王士禛의 문학풍조에 대한 脫보편주의적 인식 고찰」, 『중국학논총』 46집, 2015.
- 이석형, 「王士禛 詞 研究」, 『외국학연구』 30집, 2014.
- 이석형, 「王士禛 詞論 研究」, 『중국학보』 62집, 2010.
- 이소영, 「제국의 도시 양주」, 『중국문학』 제81집, 2014.
- 조영현, 「明末, 清初 揚州의 社會變化와 그 性格」, 『서울대동양사학과논집』 제22집,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Yangzhou's Reconstruction  
and Literary Men's Community in the Early Qing Dynasty  
- Focusing on Wangshizhen's Literature

Hong, Hye-Jin

Yangzhou揚州 was a city experienced genocide by Manchurian, in the Early Qing dynasty. But A hundred years later the city was described as an open and dynamic center of economy and art culture in 『揚州畫舫錄』 written by 李斗. Because Wangshizhen王士禛(1634-1711) took an active part in Yangzhou as 揚州推官 from 順治 17(1660) to 康熙4(1665), the city together with Suzhou蘇州, Nanjing南京 could restored the splendor of the Late Ming Dynasty and jumped up to be a big city in Jiangnan江南.

In order to promote a local sense of solidarity in Yangzhou, he traveled throughout the various places, including 紅橋, 平山堂, 南京 etc, and 紅橋, and he took part in the cultural events of the city, sometimes planned it for himself. He led the culture of Yangzhou by writing poems and Ci as a group and making a collection of poems to celebrate the event. As a result, he worked hard to communicate with the local people.

Based on this, he argued for a new theory and led to cultural revival.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focusing on 詩 and 詞, he practiced his own independent theory and activated traditional literary Men's cultur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literary Men's communities, the formation of intellectuals, and the growth of individual identity. Second, He specialized in local culture by actively utilizing the landscape and culture of Yangzhou and its surrounding areas as sanctions for his work. Also, he increased his social affinity through travel. Third, Wangshizhen went to Yangzhou and surrounding cities and participated in seasonal festivals and private forest 詩會, and revived Yangzhou' culture by holding 紅橋修禊. It was highly anti-political and involved diverse people beyond their status and age. Fourth, He used various textures to maintain or expand close relationships with participants. H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intellectuals by playing the role of a supporter to publicize the talents of the common people. The literary community centered on him would have been an important base for restoring Yangzhou.

Key words: Early Qing dynasty, Yangzhou, Wangshizhen, City reconstruction, Literary Men's community, shenyunshuo

이 논문은 2020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8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8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